

데스크시각



송기동
예향부장

지난 9월 22일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자리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행화탕’. 마임 배우 유진규 씨가 바닥에 전지 6장을 펼쳐 놓고 투명 플라스틱 병에서 개미 한 마리를 꺼내 그 위에 내려놓는다. 풀어놓은 개미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인다. 백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개미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써 주십시오.’

관객들이 하나둘씩 나와 백지에 자기의 생각을 짧막하게 써넣는다. ‘도망쳐.’ (30대 여성) ‘무엇이 구속인가.’(20대 여성) ‘만들어지고 행해진 삶 정해진 죽음 미로.’(50대 남성) 한 관객은 신발을 벗어 개미 옆 백지를 ‘탁’ 때린다. 배우는 되장하고, 개미는 글자 사이를 부지런히 움직인다. 스텝이 나와 개미를 그대로 둔 채 종이를 접는다.(양전)

도심에 방치돼 있던 공공 건축물들이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도시 재생’

도시 재생의 주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목포와 군산에 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은 근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인다. 또 최근 돌아본 스페인과 독일 및 프랑스에서는 혐오 시설이던 도축장을 비롯해 맥주 공장과 정력 지원 시설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폐철도가 산책로와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폐건축물이 문화 공간으로

‘행화탕’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오래된 동네 목욕탕이었다. 60여 년간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낡은 목욕탕은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유진규 씨 공연은 목욕탕 내 보일러실과 탕으로 쓰였던 공간에서 진행됐다. 사랑에 붉은 벽돌과 하얀 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관객들은 목욕탕 ‘난쟁이 의자’에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유 씨는 굳이 ‘행화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뜻깊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고 SNS에서 밝힌 바 있다.

스페인 ‘마타데로’(Matadero)는 1925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마드리드에 고기를 공급하던 도축장이었다. 현재는 창작 작업실·시네마테크·전시장 등 시민

을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지난 9월초 이곳을 방문했는데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혐오 시설이었던 도축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점이 이채로웠다.

프랑스 ‘프롬나드 플란테’(Promenade Plantee)는 1859년부터 1969년까지 바스티유 역과 생마우르 역을 연결하는 고가철도였다. 20여 년간 방치됐던 이곳은 1993년에 4.7km 길이의 도심 공원으로 바뀌었다. 고가 위는 나무와 꽃으로 꾸며진 산책로로, 철로를 지탱하던 아치형 아래 공간은 수공업자들의 공방과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 역시 오전에 방문했을 때 좌우로 심어진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뛰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주부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역사·이야기 살려야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가운데 79번째 핵심 정책 과제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쇠퇴한 구도심 등을 활성화시키

려는 의도에서 벌이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토론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절반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쓰임새가 끝난 공공 건축물은 자칫 헐리기 쉽다. 자연 건물과 함께 쌓였던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는 셈이다. 도시 재생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1930년 건립된 남광주역사와 1925년 신축한 옛 광주여고 건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순간 철거돼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광주 역사가 담긴 ‘학동 팔거리’가 아파트 단지 공사 과정에서 없어진 사례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고층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주택조합의 재개발 사업도 문제다.

때론 신축보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 재생은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마을과 도시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살리는 도시 재생만이 도시시라는 ‘큰 나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은편칼럼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교 교장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1970년대 초·중·고 화장실이나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마다 소변을 수집하는 하얀 플라스틱 통 옆에 쓰인 문구다. 가발이나 이쑤시개 외에 변변한 수출품이 없던 때 사람의 소변에서 혈전을 녹이는 ‘유로키나아제’를 뽑아내 수출하기 위해서였다.

30여 년 전 상업고등학교 졸업반 담임을 맡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학급에서 10명 남짓이 은행에 취업하던 때였다. ‘흙커멍데이’(모교 방문의 날)라고 졸업 30년 만에 제자들의 연락을 받고 당시 근무했던 학교에 다녀왔다. 50대에 접어든 제자

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은회를 베풀면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1984년 당시 우리 반 학생 55명 중 집에 전화기가 있던 학생은 1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명이 전화기 없어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전화기 있는 학생을 지역별로 맨 앞에 세웠던 기억이 새롭다. 시계, 라디오, 재봉틀, TV 등이 가정환경조사의 단골 매뉴얼인 시절, 집에 자동차가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의 삶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다. ‘배껴질라. 뛰지 마라’던 시절, 허리끈을 줄래라고 돼, 돼지고기, 토끼고기, 오징어 말린 것을 가지고 수출 길에 나섰다. 잔디 씨 수집이 방학 숙제였던 시절이었다. 그 결과 1964년 1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감격하던 때가 엇그제 같다. 이를 기념하여 ‘수출의 날’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수출에 나라의 명운을 걸다시피 앞만 보며 달린 결과 50년 만인 2014년 57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세계 제7위 무역 대국이 되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은 다 아는 데 우리만 모르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사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돈 벌어 잘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중 불법 체류자가 20여만 명으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신고도 할 수 없다.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다. 강제 출국당하지 않기 위해 방안에서만 키운다.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금수저’와 ‘헬조선’이란 말이 널리 깔려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빈부의 격차와 각종 병폐를 지적한 말이다. 아직 우리 사회의 높은 상대적 빈곤의 벽을 볼 때 공감하는 바 크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 74여 인口中 절반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사실도 잊

어서 안 될 것이다. 눈먼 애국심보다 냉정한 평가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을 제일 저평가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란 말이 있다. 김포~제주 구간 항공 탑승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항공 노선이라는 2014년 국제기구 발표가 있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즐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의 부드러운 정권 교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외국인들을 볼 때 가슴 뚫듯하다.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6·25전쟁의 핏더미 위에서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이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도 차량 파괴는커녕 거리 청소까지 말끔히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남미까지 확산하는 한류 열풍을 보라. 우리는 기네스북에 오를 문화유산을 지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기 고

팔순 앞두고 복싱과 인연 맺은 사연



이진영
(주)하이·후담·해솔아스콘 부회장

광주 남구 진월동 우리 동네에는 복싱 클럽이 있다. 나이 80을 앞둔 필자가 다시 글러브를 끼게 된 것은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젊은 시절 복싱의 매력에 이끌려 잠시 취미 생활로 권투를 즐겨했다. 지금도 집 앞 전일복싱클럽에서 청소년 회원들과 맘을 흘리며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하고 있다.

권투하면 생각나는 것은 반세기 전인 지난 1966년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WBA주니어미들급 경기이다. 김기수 선수가 한국 역사상 첫 세계챔피언으로 등극한 경기였다. 당시 첫 세계 챔피언 탄생으로 이 나라 젊은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권투를 사랑했고, 특히 협심이 강한 청소년들은 복싱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복싱은 시대적 거리감이 있는 듯한 운동으로 여겨져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필자는 복싱은 거칠기도 하거니와 문제아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복싱을 즐기고 있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한 나머지 움직임이 샌드백을 두드리고 스파링을 주 4회가량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신이 맑아지고 체력도 유지할 수 있어 복싱이야말로 건강 장수를 위한 준비에 제격인 듯 하다. 인생을 완성해 가는 시점에서 좀 더 많은 세상을 살면

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세상과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을 성싶어 복싱을 권해 보는 것이다.

민족 대명절인 올해 추석은 유난히 긴 휴가기간에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절기임에도 젊은 세대들은 쉬지도 못하고 학업과 취직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흔히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들 한다. 우선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종일토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열중한 나머지 생활에 지치지도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직장 채용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때로는 인터넷 강의 등을 듣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게 마련이다. 탈출구 없는 이들이 잠시 짬을 내 어느 도장이든 찾아가 샌드백을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한다.

복싱은 양손을 사용해 주먹으로 샌드백을 치지만 몸에 무리는 주지 않기 때문에 노화나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뇌신경의 발달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강화하고 근육의 이완과 수축, 균형 감각, 스피드와 유연성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한국뇌학회 회장인 서유천 서울대 의대교수는 “뇌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손을 관찰하는 부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린 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게 복싱이다. 복싱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운동이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주먹’을 잘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 여유와 자신감도 생긴다.

팔순을 앞두고 복싱을 즐기는 내 이야기가 장수 시대에 분명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 줄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슴 속에 일렁이는 무엇인가가 느껴지게 말이다.

社 說

구멍 뚫린 정부 양곡 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축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재고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량 파악과 품질 관리는 후진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양곡 참고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5만 t이었던 정부 양곡 재고량은 올해 3월 209만 t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도 3883개에서 4486개로 늘었다. 이중 전남의 정부 양곡 보관량은 51만 t, 창고는 132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부 비축미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보관은 지자체가 농협이나 민간 창고업자와 계약해 맡긴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재고량과 쥐·병해충 등의 피해, 쌀 품질 손상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창고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

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입고 및 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등 모든 관리가 수기(手記)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집중 점검 기간 중 평균 3.2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하루 평균 14.4곳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t의 쌀이 보관된 창고 1곳당 평균 점검 시간은 고작 17.7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경북 예천에서는 1814t의 정부 양곡이 사라졌는데도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자세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양곡 관리 실태다. 정부 비축미 확보는 수급 조절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올해도 35만 t의 공공 비축미를 매일할 계획이다.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초고층 건물 난립’ 광주 스카이라인 낮춰야

광주 도심 외곽이 대부분 고층·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둘러싸여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광주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전망대나 사직공원 사지타워에서 보면 광주 도심은 사면이 아파트로 포위돼 있는 형국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역시 고층 건물에 가려 웅만한 높이의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시의 경관은 답답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제 고층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다.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빌딩 등의 건축은 그 일대의 경관과 생활환경까지 바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다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아 삶의 질이 심각히 떨어진다. 특히 숲이나 공원 주변의 경관·교통 등 생활환경을 고려해 기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의 경우, 근거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생활 패턴마저 바뀌게 된다.

최근만 해도 광주상록회관이 들어서 있는 서구 농성동 일대에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계획이 광주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일대엔 30층 이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데 주상복합 건축물 부지 바로 뒤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최고 29층) 입주 예정자들은 조망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광주 지역에서는 1만㎡ 이상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1만㎡ 이하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다. 초고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최소 부지가 1만㎡이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면서 광주의 경관마저 엉망이 되고 있지만 아직 대책이 없다고 한다. 도시의 쾌적성(amenity)을 확보하고, 주민의 조망권·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고층·초고층 신축 건물 높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인어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과 신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서양에서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 가장 유명하다. 세이렌은 원래 하체가 새 모양으로 꼬꼬리처럼 청아한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했다. 오디세우스만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 내고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로고이기도 한데 서양문화에선 인어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동양 신화에선 인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산해경에 나오는 저인국 사람들은 반인반수의 인어다.

여수 신지끼

특이한 점은 인어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닌 무뚝뚝한 아저씨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어 전설이 터라 있지만 여수 거문도의 ‘신지끼’ 이야기가 단연 눈길을 끈다. 거문도에는 서도 해안가에 ‘신지끼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인어가 자주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를 ‘신지끼’가 된 인어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인의 모습으로 달빛 아래서는 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신지끼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돌맹이를 던져 해방을 놓기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조업에 나섰다가는 풍랑을 만나 화를 입었다. 선원들을 유혹해 위험에 빠뜨리는 서양 인어와 달리 신지끼는 낚시를 예측해 위험을 알려 주는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여수는 인어와 인연이 깊다.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주제관에 등장한 듀공은 인어의 실제 모델이라 할 만하다. 듀공은 몸길이 3m 내외로 지구촌에 100여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다. 5년에 한 번꼴로 수면 위로 나와 호흡을

하는 습성 때문에 예부터 선원들은 듀공을 보고 인어로 착각했다. 여수엑스포는 듀공을 등장시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를 잘 표현했다.

여수시가 지난해 신지끼 이야기를 웹드라마로 만들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남만 버스’라는 시티투어 버스에서 신지끼 이야기를 뮤지컬 공연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8월부터 매주 금·토요일과 공휴일 남만버스를 운행 중인데 매회 만석이라고 한다. 여수의 새로운 명물인 신지끼가 더욱 전설이란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시 자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